

오월 우리들은 자란다... 아이와 함께 하는 문화 나들이

광주·전남 곳곳서 '어린이날' 행사

광주박물관·과학관·남도국악원 등 특별행사 '풍성' 시립미술관 '나만의 미술관'·도립미술관 '아트데이' ACC재단 '하우펀12'...문화전당 하늘마당 개방키로

백내번재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나들이객 발길을 붙든다. 하루 기념일에 머무르지 않고, 연휴 기간 내내 이어지는 어린이 문화 주간으로 확장되면서 다양한 행사 선택의 폭이 넓어질 예정이다.

먼저 국립광주박물관은 5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박물관 일원에서 도자문화관 개관 기념 '어린이 도자 축제'를 연다.

개막일인 2일에는 마칭밴드 퍼레이드가 축제의 문을 열고, '동춘서거스'와 전통 연희 '무등산 호랑이'가 무대에 오른다. 3일에는 버블블론쇼와 '공룡 애니멀쇼', 4일에는 도자문화관 로비에서 촛불 음악회, 어린이날인 5일에는 캐릭터 퍼레이드와 포토타임이 각각 마련된다.

이와 함께 '액막이 명대 만들기'와 '미니 향아리

꽃꽂이', '땡글땡글 만들기' 등 도자를 주제로 한 체험이 준비된다. 페이스 페인팅과 풍선 아트, 플리마켓, 푸드트럭도 함께 운영돼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어린이 대상 다채 체험과 도자기 물레 체험, 분청 기법 체험이 마련돼 보고, 듣고,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 5월 2일부터 2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성인을 위한 도자 전문가 강연도 이어진다. 전시 공간에서는 스텝을 모아 엽서를 완성하는 '광박 도장개기', 사진 공모전 투표, 어린이박물관 캐릭터 찾기 이벤트 등도 준비된다.

국립광주과학관은 5월 5일 2026 어린이날 특별 행사 '과학관에서 재밌게 노는 날!'을 선보인다. 특히 어린이날 주간을 기념해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3일간 상설전시관(본관·어린이과학관·인공지능관)을 전면 무료 개방하고, 어린이날 당일에는 본관과 어린이과학관을 중심으로 공연·체험·이벤트 등 3개 분야 총 9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본관에서는 '알록달록 여름 컬러링 편집 만들기', 어린이과학관에서 '빙글빙글 봄 바람개비 만들기'가 총 6회에 걸쳐 운영되고,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과학과 마술, 풍선아트를 결합한 별문 아티스트 공연 '와우! 풍선아트 쇼'가 펼쳐진다.

본관에서는 사탕 나눔 '동물친구와 사진 찍고 선물받자!', 어린이과학관에서는 '웃음 한 가득! 페이스 페인팅', 어린이과학관에서는 '어린이날 우리가족 기념샷', 본관 2층 상설전시관에서는 숨겨진 단서를 찾아 퀴즈를 해결하는 '코드명 0505: 사라진

행사명	기간	장소
어린이 도자 축제	5월 2일~5일	국립광주박물관
과학관에서 재밌게 노는 날!	5월 5일	국립광주과학관 일원
무당호랑이 쿵이	5월 5일	국립남도국악원
ACC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펀12	5월 2일~3일 5월 5일(5월 4일 휴관)	ACC 어린이문화원·아시아문화광장
나만의 미술관	5월 1일~5일	ACC 하늘마당 무료개방
어린이 아트데이	5월 5일	광주시립미술관
키즈콘서트 오케스트라 게임	5월 4일~5일	전남도립미술관
토토전 토요일상설공연	5월 1일~3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아트키카 시리즈 '작은 나의 커다란 꿈'	5월 2일	전통문화관
	5월 3일~6월 21일	주안미술관



지난해 국립광주과학관 어린이날 특별행사 진행 모습

과학보물을 찾아라' 특별 해설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국립남도국악원은 5월 5일 오후 3시 어린이국악극 '무당호랑이 쿵이'를 전악당 무대에 올린다. 국립남도국악원의 올해 대표작인 이번 공연은 백두산 무당호랑이 쿵이의 진도 노정기를 그린 작품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노래로 평화롭게 만든다는 이야기다.

노래를 삼키는 존재 흑룡이 깨어나자 쿵이가 세

상의 노래를 되찾기 위해 길을 떠난다. 진도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노래는 혼자자 아니라 함께 부르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혼자자 아닌 함께 만든 리듬 속에서 강강술래가 완성되면서 흑룡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세상이 다시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당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악당 야외마당에서는 인생네컷 촬영, 민속놀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5월 5일 어린이 갤러리 일원에서 창작 체험 프로그램 '나만의 미술관'을 진행한다. 이날 프로그램은 어린이 갤러리 '보다, 그리다, 나만의 그림' 전시와 연계한 심화 체험프로그램 2종과 현장 참여형 어린이날 기념 프로그램 3종 등 총 5종으로 구성된다. 각 프로그램

램은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와 표현력을 확장하고, 놀이와 학습이 결합된 예술경험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전남도립미술관도 5월 4일부터 5일까지 어린이 아트데이를 실시한다. 내 손 안에 무릉도원: 수목 무드 등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전시 연계 워크숍이 열리고, 버블 매직쇼와 어린이 인형극 등의 공연 프로그램, 우리가족 인생네컷으로 운영되는 포토 부스, 그리고 스탬프투어와 바다드로잉, 입체카드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이외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ACC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펀 12'를 5월 2~3일과 5월 5일(5월 4일 휴관) 어린이문화원과 아시아문화광장 일대에서 여는 한편, 크로스백과 다양한 학용품으로 구성하는 키즈 기프트세트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키즈 기프트세트'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여유로운 심터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하늘마당을 임시 개방하기로 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보고, 듣고, 만들고'... 확장된 전통문화 한마당

'토요상설' 5월 2일 '무등퓨리언 in 희경루' 9일 산조·춘향가 공연...절기·장인 기술 체험 '다채'

바이올린 한 대, 극한의 24곡 무대로 파가니니 카프리스 전곡...내달 24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 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전통공연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까지 할 수 있는가 하면 잊혀져가는 세시·절기 문화를 되살려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어울리는 문화 향유의 장이 펼쳐진다. 보고 듣는 것에서 나아가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끼는 경험을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국악 공연과 절기 체험이 결합된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확장된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다.

먼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5월 2일 오후 3시 내 번째 토요상설공연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가야금 산조와 판소리로 구성된 전통 음악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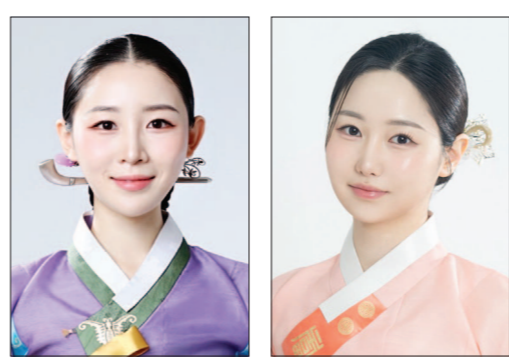
첫 무대는 가야금 연주자 최지혜가 장식한다. 최지혜는 숙명여대 대학원 전통음악학과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국립남도국악원 청년단원으로 활동한 연주자다. KBS 국악신예대상 최우수상, 구례 전국가야금경연대회 최우수상 금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은 차세대 국악인이다. 이날 무대에서는 '갑작파류 가야금산조-결정'을 선보이며, 낮고 깊은 음색의 조율법을 사용해 거문고와 같은 목격한 울림을 전한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교본 전수자 김명준의 장단과 함께 25분간 산조 특유의 깊이 있는 무대를 펼쳐낼 예정이다.

이어진 무대는 소리꾼 고혜수가 맡는다. 전남대 국악과를 졸업한 고혜수는 다양한 공연과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젊은 소리꾼이다. 판소리 '춘향가' 중 이몽룡과 춘향이 처음 만나 사랑이 시작되는 장면은 중심으로 30분간 무대를 펼쳐 봄날의 정취 속 두 인물의 감정을 섬세하게 풀어낸다.

공연과 함께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토요일 토·토·전(토요일, 토요일은 전통문화관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놀이 체험, 농악공연 및 타악체험, 한복 체험 등이 오후 1시부터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절기·세시 체험프로그램 '2026 무등



고혜수

최지혜

퓨리언 in 희경루'가 열린다. 오는 5월 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희경루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일하, 초록으로 물든 장인의 하루'라는 주제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절기의 변화에 맞춰 삶의 리듬을 조율해온 옛 문화를 다시금 되살리자는 취지다.

행사에서는 희경루 잔디마당에서 피크닉 형태로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광주시무형

유산 기능보유자 이준수 악기장과 함께는 안쪽 지압봉 제작을 비롯해 광주의 대표 전통 붓인 진다리붓을 만드는 안영현 명인과 캘리그래피 체험 등 전통 장인의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풀잎과 꽃잎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한 염색 손수건 만들기도 해볼 수 있다.

특히 자연 염색 체험은 돛자리를 지장한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 후 추첨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두 프로그램 모두 신청 가능하나, 1개 프로그램만 최종 참여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전통문화관 홈페이지·인스타그램에 공지(5월 6일 오후 1시). 선정자에 한해 개별 안내될 계획이다.

현장 참여 프로그램은 행사 당일 운영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고, 야외 행사 특성상 우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 방식 및 세부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다. 두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내면의 이미지 '영화적 장면'으로 확장 투영

유순 개인전 내일부터 광양문화회관 제1전시실

전남 광양에 머물며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고, 그곳에서 미답갤러리 대표를 맡아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유순(본명 김유순) 작가(사진)가 제10회 개인전을 5월 1일부터 7일까지 광양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COLORFUL CINEMA : 머릿속 풍경'이라는 타이틀로 갖는다. 작품작은 100호 이상 10점과 50호 이하 8점.

타이틀인 '머릿속 풍경'은 외부의 세계를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내면에 축적된 감각과 기억, 감정의 파편들이 서로 뒤섞이며 만들어내는 심상의 장면들을 말한다. 여기서 심상의 장면은 내면의 세계로 이해하면 된다. 작가는 이 내면의 이미지를 '영화적 장면'으로 확장했다. 작가는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흘러간다는 느낌 때문이어서다.

특히 서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한 색감과 분위기, 그리고 감정의 흐름이 장면들을 연결하며 하나의 이야기처럼 작동한다. 이번 전시는 그 흐름을 포착하고, 정지된 이미지로 번역하는 시도이다. 결국 작가의 작업은 '보이는 풍경'을 넘어 '느껴지는 풍경'을 그리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관람자들이 각각의 '머릿속 영화'를 떠올리기를 바란다. 화면 속 풍경은 하나의 정당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감정과 기억이 자유롭게 흐르고 머무를 수 있는 장을 제공

한다. 자연의 흔적과 내면의 감각이 뒤섞인 이 풍경 속에서, 관람자는 스스로의 색과 장면, 그리고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자연의 이미지를 재구성해 내면의 장면으로 확장한 상영관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기억과 감각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고 밝혔다.

유순 작가는 조선대 대학원 미술학과(서양화 전공)를 졸업, 전남미술대전과 광주시미술대전, 전북미술대전 등에서 입선을 했으며, 제1회 배알도미술대상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광양미술협회를 비롯해 광주미술협회(사) 대한민국수채화작가협회 조미회, 중작파, 아트그룹 하랑 등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한 대의 바이올린이 무대를 채운다. 소리는 비어 있지 않다. 오히려 더 뻗뻗하다. 손끝의 떨림과 호흡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다.

광주예술의전당이 오는 5월 24일 오후 3시 대극장에서 파가니니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24개의 카프리스' 전곡을 올린다. 클래식 역사에서 가장 난해한 작품군으로 꼽히는 곡들이다. 연주자에게는 시험대, 관객에게는 집중의 순간이다.

이번 무대는 기획공연 '그랜드 스테이지' 시리즈 중 하나인 '슈퍼 클래식 몬스터'로 꾸러진다. 이름 그대로다. 독보적 기량의 연주자를 '몬스터'로 호명한다. 약기 하나, 연주자 하나, 여백이 많아질수록 긴장은 더 또렷해진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24개 카프리스는 바이올린의 한계를 밀어붙인 작품이다. 더블 스톱, 왼손 피치카토, 초고를 포지션 이동, 기술은 끝까지 치달린다. 작곡 당시에도 "연주 불가능"이라는 말이 퍼져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연주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다.

무대에 서는 이는 미국 바이올리니스트 케빈 추다. 예후디 메뉴힌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와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를 석권했다. 특히 파가니니 콩쿠르에서는 카프리스 최고 연주상까지 거머쥐었다. 공연은 초동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다.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입장료는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황해은 기자 nab@gjdream.com

